

2023년 경기문화재단

예술 질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로 움트는 5년을 되돌아보다

리파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예술
질

리

예술
짚

ZIP

2019년에 시작된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이 운영하는 곳으로 경기예술인의 필요성에 따라 점차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기예술인을 위한 예술짚(ZIP)〉은 5년간 진행됐던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과정을 참여 예술인의 시점에서 담아낸 책입니다.

경기도, 예술, 지원사업
3가지 키워드로 모인 이들의 창작활동은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짚(ZIP)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예술인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창작활동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맑은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목차

| | | |
|-----|---------------------------------------------------------------------|----|
| | 여는 글 | 09 |
| 1장 | 경기에술인지원센터란? | 11 |
| 2장 | 창작공간 입차료 지원 경기도에 꽃힌 비보이라는 것발 퓨전엠씨 | 13 |
| 3장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Beyond Somewhere, 흩어진 청년의 삶을 담다 조민아 | 21 |
| 4장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마음을 비추는 몸짓으로 쌓아 올린 예술터는 견고하다 무빛이매진 | 29 |
| 5장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여기술술> 창작의 멜팅팟, 교차점 속 예술인들 소울크로싱 | 37 |
| 6장 | 경험공유 아카데미 <여깃거리> 이야기로 연대하는 사람들, 엄마예술가로 살아남기 박혜원 | 45 |
| 7장 | 못다 한 소개, 경기 예술인 이어달리기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 | 53 |
| 마무리 | TO. 경기도예술인 | 58 |

예술짚(ZIP)은 경기예술인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사업을 담은 '모음집'이자 여러분의
힘든 순간에 따뜻한 곁을 내어주고, 예술
과정을 지지하는 '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의 예술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12월,
더욱 확장된 예술짚(ZIP)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온기를
더하는 예술짚(ZIP)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드림

여는 글

온기를 더하는
예술짚(ZIP)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술인과의 대화

2022~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를 통해 예술인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청년예술인, 불편한 몸으로 폭우를 뚫고 정담회장으로 달려온 장애예술인, 예술로 하나 되어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원로예술인까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매년 4회차 진행된 정담회 속 예술인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예술인 커뮤니티>와 <예술인 지원사업>. 놀랍게도 예술인이 바라는 바는 이미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과정들이다. 다만 모든 경기예술인에게 닿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변화였다.

함께 온기를 더하는 예술짚(ZIP)

경기예술인을 향해 모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정담회에 이어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문화 컬렉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술인지원센터가 나선다. 예술인 자립 지원, 예술인 상담, 예술인 네트워크 등 경기예술인이 다채로운 지원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넘어 예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경기예술인을 위한 예술짚(ZIP)>을 마련했다.

<경기예술인을 위한 예술짚(ZIP)>에서는 수많은 경기예술인 중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이 확장되어 가는 예술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지원사업의 A부터 Z까지 소개한다.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의 예술영역을 확장해 간 예술인들의 진솔한 인터뷰가 담겨 있는 만큼, 경기예술인이 경기예술인에게 응원을 보내는 창이자 풍요로운 예술의 기회를 발견하는 책이 될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인의 ZIP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해하던 예술인에게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단단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만들어 갈 경기예술인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따스한 ZIP에 여러분도 함께해 보자.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강보경



1장

그래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어디라고요?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웹사이트

사업개요

| | 사업명 | 대상/내용 |
|-------------|---------------------------------------|------------------------------------------------------|
|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경기도 청년예술인 |
|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 |
|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창작활동의 공간이 필요한 경기도 예술인, 단체 |
|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경기도 내 예술활동 기반 협동조합 (설립 3년 미만) 혹은 예비 협동조합 |
|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예술창작에 도전하는 예술인·단체 |
| | '전문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팔꿈치> | 대표자 포함 구성원 2/3이상이 경기도 거주자인 예술 커뮤니티 |
| 예술인 상담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운영 |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예술활동 증명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등 |
| | 움직이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All in ONE DAY> | ▶ 예술 행정 기초 실무교육 ▶ 인문학 강의 ▶ 특별상담(색채·심리·법률상담 등) |
| 예술인 네트워크 | 아카데미 <아트UP> | ▶ 예술인 자립 역량 교육 ▶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
| |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 예술인의 지식과 정보,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경기도 예술인 |
| | 예술인 DB 등록 및 커뮤니티 | ▶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 ▶ 경기 예술인 소통회의 ▶ 예술인 커뮤니티 페이지 운영 |

오시는 길



| | |
|----|---------------------------------------------------------|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1층 |
| 운영 | 오전 10시 - 오후 4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
| 주차 | 가능(무료) |

대중교통

| | |
|-----|-----------------------------------------------------------------------------|
| 버스 | 수원시내버스 88, 88-1, 720-2 탑승 ▶ '경기도기숙사' 또는 '경기상상캠퍼스'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 이동 2분 |
| 지하철 | 수원시내버스 13-1, 13-5, 82-2, 92 탑승 ▶ '서호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 이동 7분 |
| 택시 |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후문) 하차 |

전화문의

| | |
|----------|--------------------|
| 예술인 자립지원 | 031-231-0866, 0867 |
| 예술인 상담 | 031-231-0895, 0866 |
| 예술인 네트워크 | 031-231-0880, 0898 |

2장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에 꽃힌
비보이라는 깃발

비보이그룹 퓨전엠씨



비보이그룹 푸전엠씨는 브레이킹 문화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에 앞장서고 세계 무대를 선도할 글로벌 한류 공연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창단 이래, 약 30회 이상의 세계 비보이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2015년 10월 '세계 비보이크루 랭킹 1위'를 달성하며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다. 바쁜 해외 출장과 공연 일정에 이어졌음에도 선뜻 <예술짚(ZIP)>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푸전엠씨, 이들이 프로젝트에 응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 명료했다. 인터뷰 속 그들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크루 푸전엠씨의 황정우 단장입니다. 저희 푸전엠씨는 2002년 중학교 동아리 팀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크루입니다. 처음 시작은 중학교에 작은 동아리로 시작하였으나 꿈과 열정을 갖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세계적인 비보이팀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팀이 되었습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보이가 대중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튜브와 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 채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운영을 할 때는 반응이 미미했으나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모든 채널 총 팔로워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인 짧은 동영상 숏폼(Short-Form) 영상을 제작하며 MZ세대인 10대~20대들과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많은 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비보이, 즉 브레이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99년에 동네 형들이 춤을 추는 것을 우연히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브레이킹이라는 춤이 주는 매력에 빠져 더욱 몰입하며 비보이 댄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멤버 대부분이 한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이라 춤으로 세계 제패를 꼭 해보자는 꿈을 함께 그리며 노력했고 현재 40여 개의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지만 함께 서로 의지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예술 활동이 있나요?

푸전엠씨가 세계 비보이들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팀을 창단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때인 2013년에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팀으로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세계 메이저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배틀 오브 더 이어'는 세계 모든 비보이들의 꿈의 무대라 불리는 대회입니다. 저희는 2013년에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그때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며 늘 꿈꿔오던 무대에서 결과까지 좋았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부터 예술활동을 이어오는 동료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5년이 넘게 활동을 이어오는 김종호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네에 춤을 배우고 싶다면 온 것이 첫 만남이었죠. 정말 어린 친구가 와서 춤을 배우겠다기에 한동안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재능이 좀 부족하다 싶을 만큼 습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정말 잘하는 비보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의 재능은 바로 노력이었죠. 결국 19살에 저희 팀에 들어온 김종호 단원은 2015년부터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정상급 비보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극마크를 단 브레이킹 최초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실력은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노력하는 게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지금은 팀의 주축 멤버로 함께 수많은 세계대회에 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한 팀의 든든한 동생이라 참고맙습니다.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2013' 우승 사진>



<비보이그룹 퓨전엠씨 유튜브 채널>



<퓨전엠씨 스튜디오와 퓨전엠씨 단원들>



<김중호 단원, 아시안게임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퓨전엠씨』는 경기도를 거점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팀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걸까요?

퓨전엠씨 멤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시절일 때는 의정부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박현숙 청소년 지도사님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셨는데 저희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퓨전엠씨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연습 공간을 마련해준 경기도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이유이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늘 부담스러운 것은 공간 임차료였는데요. 마침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았습니다. 창작공간 운영에 있어 임차료는 대부분의 단체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합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낸 구체적인 성과가 있나요?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습 및 예술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프랑스에서 개최됐었던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MELTING CUP 세계 비보이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습과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참여할 예술인에게 꿀팁을 준다면?

창작공간은 우리의 예술 활동과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임차료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창작공간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춤에 대해 여전히 남아 있는 주위의 안 좋은 시선들을 느낄 때 좀 힘듭니다.

“언제까지 춤출 거야?”
“그걸로 돈은 얼마나 벌어?”

춤이라는 예술도 엄연한 직업인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추는 브레이킹이라는 춤으로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춤이 하나의 직업이고, 춤만 추며 살아가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보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가수, 크리에이터처럼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까요?

예술 활동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느 직업군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보이라는 예술 활동을 하며 너무 즐거워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또한 남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와이프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반대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노력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본 뒤로는 늘 응원해 주시며 지지해 주셨죠.

이에 저희도 누군가의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춤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입니다.

『브레이킹 예술학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퓨전엠씨는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브레이킹 예술학교’ 라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30여 명 선착순 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3년 전 진행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춤을 처음 시작한 중학생이 비보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오디션 통해 저희 퓨전엠씨의 정식 단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심어주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 | |
|-------------------------------------------------------------------------------------------------------|------|-----------------------------------------------------------------------------------------------------------------------------------------------------|
|  <p>상세페이지 바로가기</p> | 대상 | <p>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p> <p>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경기도 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p> |
| | 지원규모 | <p>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1개 사업체당 최대 400만원 (1개소당 8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p> <p>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1인/1개 단체당 최대 200만원 (대관 공간 개수는 3개 이하 신청 가능)</p> |
| | 방향 | <p>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및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p> |



『퓨전엠씨가 함께한 ‘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비보이 예술학교’』



**퓨전엠씨와 함께 늙을 때까지
오랜 시간 지금처럼 춤추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기반을
잘 마련해야 하기에 최종 목표를 위해서
멤버들과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장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Beyond Somewhere,
흘어진 청년의 삶을 담다

동양화작가 조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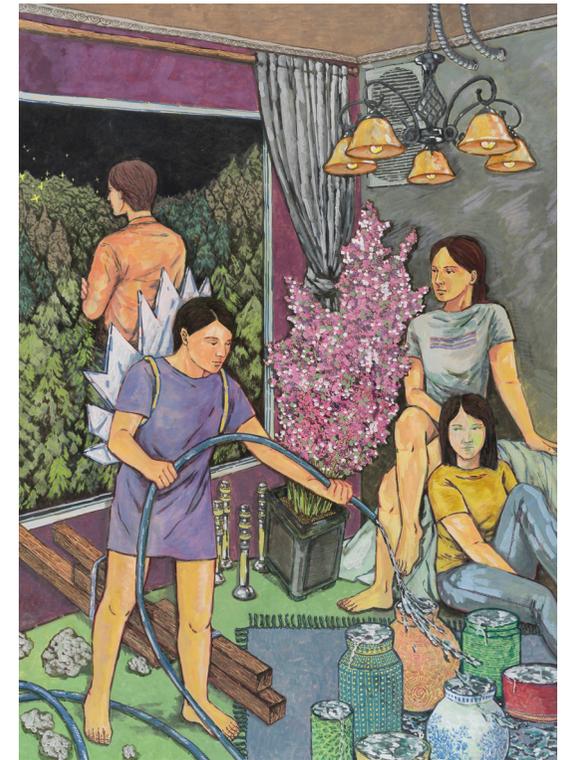


조민아 작가는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현실 속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물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인지하는 보편적인 상징이라 의미를 파악하는 재미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 MZ 세대의 동양화로 불리는 그녀의 작품을 들여다보자. 그림이 보여주는 상황과 색, 분위기를 실마리 삼아 추적하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아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경기창작센터 작업실의 전경〉



〈넘치는 저장〉 장지에 채색, 200x140cm, 2022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양화를 주ю 매체로 작업하는 조민아입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흔들리는 사이사이, 갤러리림, 2022>, <홀어진 나날, 아트스페이스보안2, 2021>, <빠기, 나누기 그리고 다시 더하기, 금호미술관, 2020> 등이 있으며 다수의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제2회 광주화루 우수상, 광주은행, 2018>,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 2017>에서 수상 선정되었으며, <푸른시대창작센터, 2022>, <경기창작센터, 2019~2021>, <금호창작스튜디오, 2016~2018>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거창한 계기는 없었고 계속 기회가 이어지면서 작업을 하고 작가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활동하는 작가들의 기량을 보면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제가 가진 생각들과 일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현실들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면서 그런 시각들이 작업과 연결되었고, 제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작업을 어떻게 선보여야 할지를 알아보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딘가에서 상을 받거나 공모가 선정되는 것 같이 성과적인 일들은 생각해 보면 찰나의 행복인 것 같고요. 그런 그만큼의 무게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작업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즐거웠고, 그리고 그것이 무리 없이 진행될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제 작품을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봐주시는 분들을 만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민아 작가님을 소개할 때, 동양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진 예술인, 젊은 작가, MZ 작가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느끼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시대에 살고 비슷한 문화를 즐기고 교육받은 것이 토대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의 시각이 작품으로 옮겨질 때 많은 상징과 상황 속에 소재들을 배치하면서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 작품이 종교화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한 그 중간 어딘가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에 제 작업을 하나씩 뜯어보시며 각자의 해석을 하시는 관람객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작가님의 성찰이 담긴 작품이네요, 그러면 작가님이 예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작업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요약하면 청년세대의 노동, 혼란스러운 가치, 다중적인 개인의 태도, 시간, 관계 등입니다. 이는 작업을 하면서 마주했던 현실이자 고민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삶이나 작업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이 과정으로 나온 작업이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물음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며 힘들거나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청년예술인으로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란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체되고 있지 않은가? 등 작업에 관련된 막막함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매년 새로운 계획이나 일정을 설정하게 되면서 활동의 유연함도 좋지만 반면에 불안함도 함께 견뎌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보거나 서브잡을 구하는 등 창작활동을 위해 다른 일을 동시에 해내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여전히 어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셨나요?

작업에 관련된 어려움은 의도적으로 작업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를 통해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살펴보고 다시 작업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서 지치지 않게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려고 생각해요. 서브잡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큰 자산이고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작가의 장점이지요. 그 외에 이 직업이 주는 여러 가지 면들을 받아들이면서 불안함보다 유연성과 개방성에 더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까요?

전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활동에 대해 복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데 더 발전적인 방법이나 흥미로운 지점들이 떠오르면 다시 그것을 풀어보거나 진화시키려는 생각들이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적절한 외부의 지원이 작업 활동에 개입된다면

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선정됐다는 것 자체로도 자격이 부여되는 느낌도 들고요. 재단마다 다양한 형식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작업 활동의 시기에 맞게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예술인 조민아 작가님의 시점에서, 청년예술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자신
일단 자신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나 동료들과의 교류도 다른 무언가를 도모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활동이나 작품을 잘 알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아주 부족한 지점이라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족 #동료 #이웃
주변에서 예술인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지인들은 그들의 성과나 활동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예술 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소득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려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사업
각 재단의 지원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선택의 폭은 넓어진 것 같아요. 행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간 재단과 예술인들과의 공청회 등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더 많은 예술인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 활동이 의미 있게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방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2021년 대부 초등학교 수업 활동〉



〈2021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과정〉



〈인류사회2020: WE, SOCIETY 전시 전경〉

❖ **작가님이 예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요소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도 저의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드린 적절한 외부지원이죠.

2020년 홍콩문화원에서 한국신진작가시리즈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인 'Beyond Somewhere'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겪게 되었던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발생하는 모순을 생각하며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동양화의 전통적인 표구 방식을 활용했고요, 기회가 좋았던 것은 홍콩 역시 표구의 형태에 익숙한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같은 듯 다른 작업이 현지 관객들에게 호응이 있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 **표구 방식이라니 흥미롭네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립준비금을 지원했을 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었던 시기여서 전시회도 많이 축소되고 물리적인 이동이 힘들어졌던 때였어요. 당시에 큰 작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출품할 때 크기와 운송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제약받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보다가 동양화의 전통적인 표구 방식인 두루마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표구사를 몇 군데 선정하여 제작 방식이나 비용과 기간, 매체의 차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실은 표구의 방법이나 작품의

마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팁을 주셨어요. 조언에 따라 두루마리 표구 형식에 맞는 긴 그림을 제작해야 했고, 이전 시대의 중국회화나 일본회화의 횡권(橫卷)회화 양식과 구조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 **창작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네요.**

맞습니다. 자립준비금이 300만 원인데요. 이 지원금이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지원금의 규모를 떠나서 이 사업으로 인해 무언가를 추진하고 도모한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생각으로만 고민했던 연구의 방법과 일정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터득된 것이 이후의 작품 활동과 연구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사업을 참여할 예술인에게 꿀팁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지원사업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꿀팁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본인이 하는 작업과의 연계성,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예술인은 결국 자신의 작업에 관한 연구와 변화를 꾀하며 작업 세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런 내용과 목표가 지원서 안에 녹여지면, 해당 사업이 지원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 |
|---------------------------------------------------------------------------------------------------------|------|---------------------------------------------------------------------------------------------------------------------------------------------------------------------------------------------------------------------------------------|
|  <p>상세페이지 바로가기</p> |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①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②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위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생애 1회 지급 |
|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 |
| | 방향 |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지원 ②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지원 ③ 사업성을 갖춘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 등 |



〈Beyond somewhere〉 장지에 채색, 81x452cm, 2020

4장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마음을 비추는 몸짓으로
쌓아 올린 예술터는 견고하다

예술협동조합 무빛이매진

최종 목표를 확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최종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끝을 정해놓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요.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안정적인 작업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싶고,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그에 맞춰 발표할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하다 보면 저만의 양식과 개성이 축적되면서 또 다음 작업으로 확장되겠지요. 그것을 순조롭게 잘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음악부터 자연의 소리까지
모든 높낮이가 배경음악이
되는 춤이 있다.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몸짓으로 완성하는 즉흥춤이다.**

**순간에 집중해 우연으로 발현되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 순간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춤.**

**모두가 동등해지는
예술협동조합으로 무빛이매진이
즉흥춤 예술터를 세운 이유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빛이매진 창단멤버 유인희입니다.
저는 현대무용 학사 졸업 후 베를린에 있는 cie. Toulalimnaios 현대무용단에서 4년간 무용수로 지내며 작품창작에 참여하기도 하며 유럽, 남미 등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용, 창작활동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춤을 계속 추는 환경에 놓여있고 싶어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무빛이매진 즉흥춤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 매주 장기자랑을 열어주셨던 멋진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춤에 대한 생각과 바라보는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들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은 예술활동이 있나요?

모든 공연, 또는 움직임에서는 특별했던 기억들이 하나씩은 남는 것 같아요. 관객, 함께 춤추던 동료, 연주, 장소, 날씨 등 올해 손에 꼽는 특별했던 활동은 땀방에서 춤을 췄던 햇빛장에서의 기억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늘에 있어도 더운 날씨였어요. 당시 무빛이매진 친구들과 햇빛장에 계신 분들과 함박웃음을 지으며 즉흥춤을 췄던 순간이 찬란하게 남아있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즉흥춤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현대무용 중에서도 다양한 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틀에 갇힌 작품 위주로 활동하다가,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즉흥춤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연습하여 무대에 올리는 춤도 그 나름의 매력이 많지만,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아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순간을 만끽하며 출 수 있는 춤이라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즉흥춤 활동을 본 주변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본래 저와 함께 춤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의 예술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이들인데요. 어느 날,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인스타그램 피드에 예술협동조합 지원정보를 보고 동료 중 김수진 예술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즉흥춤 그룹을 만들어요!"

그렇게 무빛이매진이라는 예술협동조합이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즉흥춤을 통해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제안이었는데 곧바로 실행되어 기뻐요. 또 무용수를 꿈꾸는 문지윤이라는 친구도 함께했는데요. 배우인 지윤이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 국내 무용단 시험을 여러 차례 봤지만, 좋은 결과가 쉬이 나오지 않았어요. 스승이자 친구인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빛나고 아름다운 춤을 추는 지윤이가 무용수로 설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후 김미선, 이승은 예술인까지 모여 무빛이매진이 시작되었답니다.



<무빛이매진 단체 사진>



<파주 헤이리마을 햇빛장 내 즉흥춤 공연>



<무빛이매진 공연 안내>



<파주 헤이리마을 햇빛장 내 즉흥춤 공연>

특별히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으로 무빛이매진을 꾸린 계기가 있을까요?

함께하는 모든 예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예술 작업을 하고 싶어 예술협동조합의 형태로 신청했어요.

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는 1:1 전문 컨설팅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짜는 것부터 방향성 구체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사업모델 및 마케팅·홍보까지 멤버 모두가 다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고민거리는 없으셨나요?

어려운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 저희가 계획해 오던 것들이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진짜로 실현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의 많은 것들이 수정되고 채워졌어요. 제삼자가 볼 때 잘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다 보니,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조합의 성격과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밑거름을 단단히 다졌으니, 앞으로 무빛이매진만의 길을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있을까요?

현재 예술활동의 연장선으로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현대무용, 즉흥춤, 움직임 등을 배울 수 있는데요. 지원사업을 통해 받았던 컨설팅과 사진 및 영상 촬영 경험 및 다양한 경험이 쌓여 학원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에게 꿀팁을 준다면?

시도하고자 하시는 예술협동조합 사업에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니, 실패를 두려워 마시고 마음껏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자 하시는 사업만 있다면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예술인지원팀의 응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은 정말 예술인을 '지원' 해드립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햇빛장 내 즉흥춤 공연>



<서울국제즉흥춤페스티벌 참여 현장>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 | |
|-------------------------------------------------------------------------------------------------------|------|-----------------------------------------------------------------------------------------------------------------------------|
|  <p>상세페이지 바로가기</p> | 대상 | 경기도 내 예술활동 기반 협동조합(설립 3년 미만) 혹은 예비 협동조합 |
| | 지원규모 | 조합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화 예산 (1개 단체당 1,000만원)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지원 등 |
| | 방향 | ① 경기도 내 예술협동조합 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예술현장 지속 성장 기반 구축 ② 예술협동조합에 필요한 예술분야 창업 및 사업화 아이디어 전수 ③ 자립적, 자치적 예술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문화 성장 촉진 |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춤 나누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친구들과 또 머리를 맞대어
앞으로 우리가 맨몸으로 춤추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이
무엇일지 오래도록 찾아보고
싶습니다.**

5장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창작의 멜팅팟,
교차점 속 예술인들

다원예술팀 서울크로싱



**OSMU, 하나의 소재를 서로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노리는 전략.
예술작품에서 이른바 OSMU의
정점을 찍는 팀이 있다.**

**세상에 던져진 작은 단서들로
무궁무진한 상상을 펼치는 팀,
'소울크로싱'이다.
풍성한 활동을 통해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말을 삼킨 아이〉 북 콘서트



〈방울이와 새미의 모험〉 북 콘서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집필하는 권요원입니다. 예술 활동, 이야기 창작을 혼자만의 첩보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요원(agent)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단체 소울크로싱을 운영하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협업으로 문학의 표현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문학적 탐구와 도전으로 예술적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사진 한 컷, 그림 한 장면, 풍경 등 찰나의 순간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그림책에 매료되어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출판사에 투고했는데 스토리 작가로 출간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아쉽게도 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창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동 출판 콘텐츠 기획 일을 했고, 리라이팅 작가로 몇 권의 기획동화를 출간한 뒤 순수 창작 동화를 발표하며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권요원 작가의 작품들>

팀 이름인 소울크로싱은 무슨 뜻인가요?

'소울크로싱'은 영혼의 교차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창작물을 상징하고, '교차점'은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죠. 모든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창작물은 창작자의 분신이나 영혼에 비유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작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소울크로싱은 작가님의 배우자인 임동일 작가님과 함께하는 팀입니다.

임동일 작가는 교육콘텐츠 업체에서 기획 및 시나리오 창작 분야의 업무를 하며 개인 예술 활동을 병행했고, 저는 육아를 병행하느라 전업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과학창의재단의 과학콘텐츠크리에이터 사업에 '소울크로싱'이라는 소설이 선정되어 창작지원금을 받았습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해서 소설의 제목인 소울크로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그 후에 경기상상캠퍼스 입주 공모에 지원하여 그루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협업할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팀으로 활동 하면서의 장점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것이고요. 도전과 실험을 목표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예술 활동 시, 다른 예술인과의 콜라보를 계속 이어온 셈이네요?

처음부터 콜라보를 했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기상상 캠퍼스에 입주한 경험이 타 장르의 예술인과 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예술창작지원을 통해 출간하게 된 '쿠킹 메이킹'은 요리를 소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온라인 글쓰기 활동으로 확장하며 '쿠킹 라이팅'이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경기상상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창작자들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하다 보면 여러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점도 컸습니다. 제 내면에서의 갈등도 있고, 사람들과의 예술에 대한 의견 갈등도 어쩔 수 없이 생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갈등에 대한 대처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기술술> 사업에서 팀 내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풀어갔나요?

<예기술술> 참여 과정을 되짚어 보면, 개인의 고유성과 공동체와의 관계성의 조화가 어우러졌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구상해 뒀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에 김동영, 박준태, 김준규님이 함께해 주셨죠. 혼자서 글을 쓰는 일과는 달리 기획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점층적으로 발전을 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앱 개발을 하는데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과 참여자의 편리성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컨설팅 및 강연, 지원금을 받으며 1등이라는 결과를 얻어 무척 감격했습니다.

<예기술술>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2020년에 경기옛길 스토리 공모전에 수상했었어요.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의 이야기와 경기옛길에 걸쳐 있는 문화재, 전설 등의 이야기를 책자가 아닌 앱을 통해 구현한다면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기술술> 사업을 통해 시작한 <히든테일(hidden tale)앱>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컨셉으로, 수원지역의 경기옛길의 이야기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히든테일> 작업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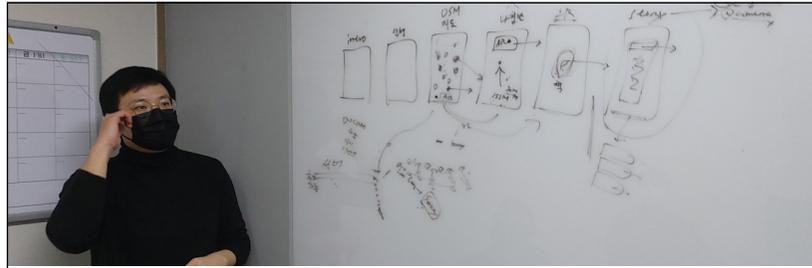
<히든테일> 작업을 발판 삼아, <기억을 삼킨 아이>라는 제 동화 이야기를 다원 예술공연 <환상의 숲, 시간의 미로>를 제작했고 AR미로 체험으로 확장했습니다. 또 탐정이 되고 싶은 청소년 아이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인 <비밀수집가>라는 책을 AR APP과 함께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서와 App의 증강현실 기술이 연계된 새로운 형식으로 독자가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에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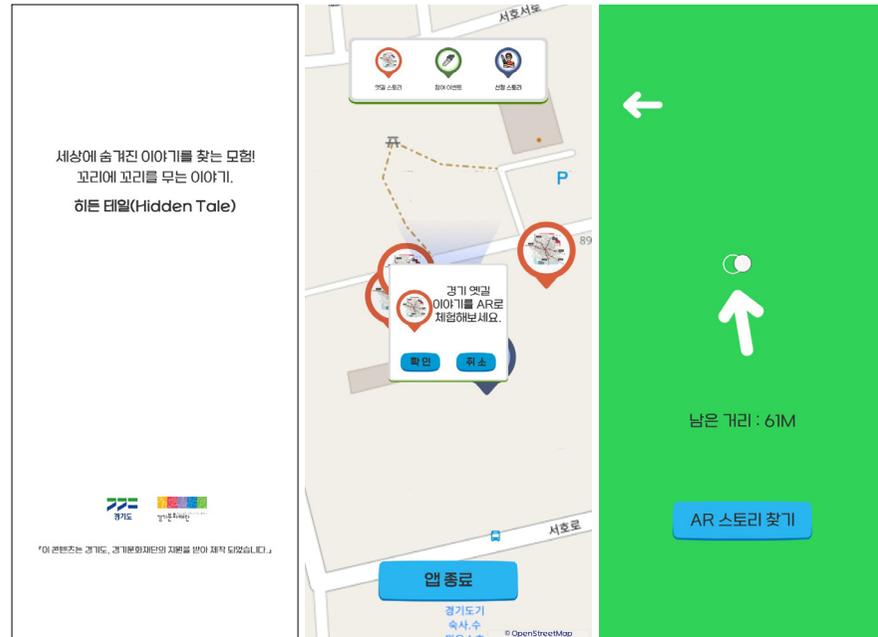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와 협업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관점을 수용하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사고로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술 따로 기술 따로 결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예술작업에 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년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 | | |
|---------------------------------------------------|------|-------------------------------------------------------|
| <p>2022년 시각분야의 다채로운 <예기술술>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p> | 대상 | 경기도 거주 예술인 및 경기도 소재 단체 |
| | 지원규모 | 총금액 10,000만원 총 5건 내외, 개인 최대 1,000만원, 단체 최대 3,000만원 |
| | 방향 |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예술창작에 도전하는 공연분야의 예술인(단체)에 대한 기술융합지원 |



《예기술술》 지원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과정》



《히든테일(hidden tale)앱》
 히든테일 앱을 통해
 경기상상캠퍼스 속
 풍요로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기억가게
 권요원
 수다 소리 가득한 곳
 빼적거리는 소리를
 따라 몸이 가라앉는다.
 사각거리는 소리에
 기억이 잘려 나간다.
 거울 속 알그려진 표정이
 나를 본다.
 이내 눈을 감으면
 짹짹거리는 소리
 나를 데려간다. (중략)

예수와 기술이 만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나요?

2022년도에는 과학기술이 결합한 SF소설 <루시의 기억>을 출간했고 올해는 근미래 환경오염을 소재로 한 청소년소설을 마무리했습니다.

SF소설이만큼 기술이 접목된 AR이나 VR 기술을 결합한 재미있는 북콘서트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표현이 있는 부분은 독자가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독자와 창작자 모두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볼 수 있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시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또 다른 최종 목표도 있을까요?

비슷한 결인데요. 문학작품을 스토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확장한 연극, 무용극 등 문학의 한계성을 넘어 다양한 다원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활동을 기반으로 제 작품으로 청소년 대상의 연극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또, 2020년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시나리오 기획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감독님의 멘토링을 받으며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영화화 진행이 멈춰버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융합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술의 표현 방법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 다원예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사업이 다양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교차점이라는 소울크로싱의 뜻처럼 예술의 교차점에서 치열하게 전진하는 이들,

다원예술 사업이 빛나는 이유는 이러한 경기예술인의 열정 때문이지 않을까?



**예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계속된 제 안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에 대한 질문, 사회에 대한
질문과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6장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이야기로 연대하는 사람들,
엄마예술가로 살아남기

엄마예술가 박혜원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경이로운 순간이 있다. 그중에 하나는 아이의 탄생이자, 엄마의 탄생. 나와 닮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만 육아를 하면서 작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로 손꼽힌다.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엄마예술가 박혜원의 '살아남는 이야기'를 만나보자.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인이며 두 아이의 엄마인 박혜원입니다. 학부에서는 동양화를 전공했고, 석사과정에서는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순수미술학과에 들어가게 된 후로 설치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 설치 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미술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년 정도 전시의 기회도 잡고 작업을 해보려고 버터보다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지원하는 곳마다 떨어지며, 난 정말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예술 활동을 그만둘 마음으로 영어유치원에 취직할 적이 있어요. 당시 새벽에 그 짹짹 들어차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난 예술인이라고 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처럼 내 일에 최선을 다해봤나'라고 반성하게 됐어요. 그때 제 업무 중 하나가 과학상자를 주문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과학상자에 누에와 뽕잎이 왔더라고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흰 실을 뽑아내 자기 몸을 감고 들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며, 평범해 보이던 생태의 한 지점에서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직장을 그만두고 삶, 생명, 죽음 그 안의 관계들을 실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을 10년이 훌쩍 넘게 작업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막연한 꿈이라는 계기로 작업을 했다면, 33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예술을 시작할 때는 간절함과 두려움 없는 용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예술 활동을 하며 힘들거나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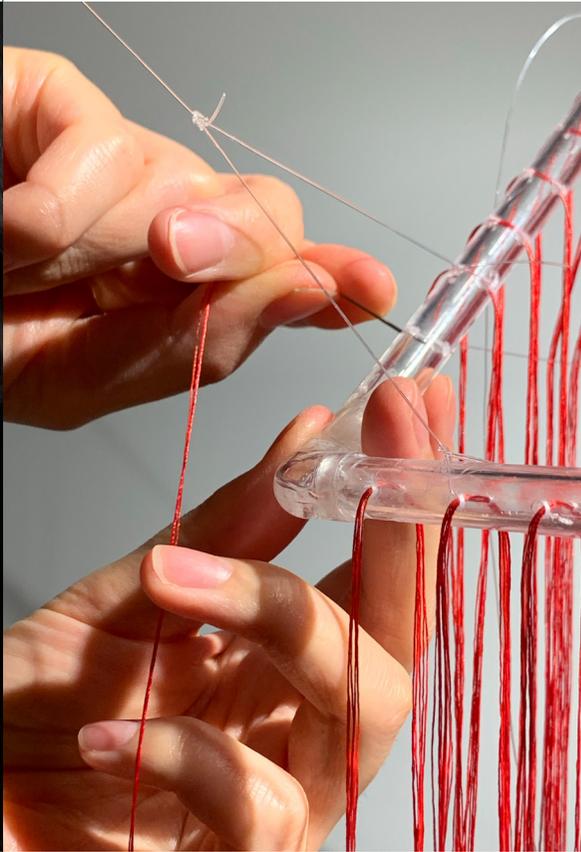
창작활동을 하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작업실에 없어도 늘 새로운 작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에 휴식이 없는 느낌이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전에 그런 생각들이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 작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땐 자주 아파요. (엄마가 전시가 잡히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어쩔 그렇게 애들이 아플까요?) 작품활동도 하고 전시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시간은 너무 없고 애들이 있으니 저녁 시간 오프닝은 참석은 엄두도 못 내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바쁠 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남편에게는 요즘 다들 맞벌이한다고 할 때, 아내가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괜스레 미안하기도 하고요. 엄마예술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게 한둘이 아닙니다.

\\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계속 도전하는 게 방법이었어요.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와 작업의 퀄리티를 올렸죠. 엄마예술가가 된 이후에는 사실 숨 고르기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치지 말고, 처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꾸준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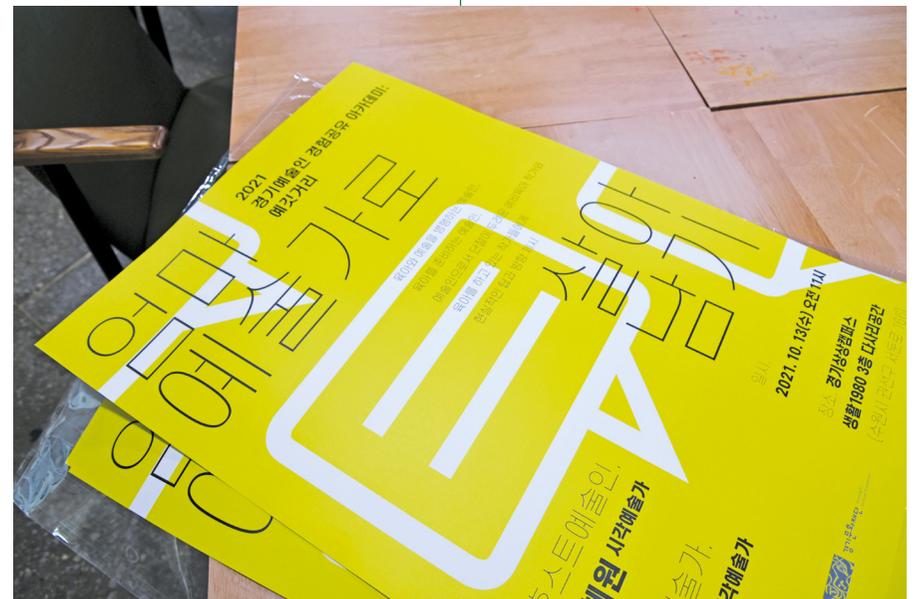
〈엄마예술가 박혜원 프로필 사진〉



〈실을 기반으로 한 작업 과정〉



〈엄마 예술가로 살아남기 예깃거리 수업 진행〉



〈엄마 예술가로 살아남기〉 포스터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에서 '엄마예술가로 살아남기'로 풀어내셨어요.

예술인으로서 단절이 두려운 예비 엄마 작가와 육아를 동시에 하거나 육아로 인해 예술과 멀어진 엄마예술가들에게 현실적인 팁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육아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건, 특히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엄마가 되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버리고 지쳐 버려요. 그 사이에 작업을 하고 발표를 한다는 건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이에 '엄마예술가로 살아남기'는 실제 아이를 키우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각예술인 조영주 작가님과 저의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어요.

<예깃거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참여하셨던 분들이 모두 여성이었고 모두 아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술인이 쌍둥이를 임신한 만삭 상태였는데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걱정되어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며 오셨어요. 그분은 출산하신 뒤, 쌍둥이 돌을 키우며 너무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다음에 엄마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꼭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말 궁금하네요. 육아와 예술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예술인으로 등록해서 아이를 맡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맞벌이가 인정되어야 돌봄 사각지대에서 엄마예술가들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집과 돌봄,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작업비를 벌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지속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실과 작업비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금신청, 레지던시 활용 방법과 아르바이트나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세 번째,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참여하기 아이들과 분리되지 않고, 예술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레지던시나 펠로우십을 비롯한 예술활동의 방식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앞으로 <예깃거리>지원사업을 참여할 예술인에게 꿀팁을 준다면?

독창적인 소재여야 하지만 자신과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이야기라 진정성이 있다면 더 많은 공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아주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설치미술을 할 때, 주로 실을 사용하다 보니 아이들이 설치작품 안에서 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술작품이라 만지거나 들어가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 작품은 아주 가는 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실이 엉켜버리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전선도 제시하고 사진 명소를 만들었지만, 아이들은 안전선을 넘어 그 안에서 뛰어놀다 실이 다 엉키고 작품이 손상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생겼고, 아이 엄마는 사과하고 미술관 측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이 반복됐어요. 그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시점으로 작품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기존에는 아이들과 함께 채집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한 뒤, 전시로 이어지는 작업이나 놀이공간 디자인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저의 작업과 아이들의 좋아하는 예술 놀이의 조화를 위해 7, 10, 13살인 어린이들 약 80명을 섭외해 각각 90분씩 두 차례 워크숍을 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전화하고, 제안서와 공문을 보내고, 강사로 투입된 인원의 성범죄 조회까지 마친 후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들고, 제 작업물의 성격이 드러나면서도 아이들과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작품의 설계를 위해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는데, 거기다가 안전성 문제가 추가되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시를 기다리는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엄마가 예술가라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요. 전시를 하게 되면 주변 친구들에게 놀러 오라고 초대하더라고요. 귀엽고 고마운 순간들입니다.

|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 |
|------------------|--------------------------------------------------------------------------------------------------------------------|
| 대상 |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경기도 내 거주 예술인 |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예술인의 지식/정보/경험을 공유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실행비 및 성과공유회 발표비 지원 ② 우수사례 선정자 5명에 한해서는 온라인 강좌 콘텐츠 제작 가능 |
| 방향 | 예술인의 지식/정보/경험 공유를 통해 자립 역량과 창작의 지평 확대 및 상호 배움 기반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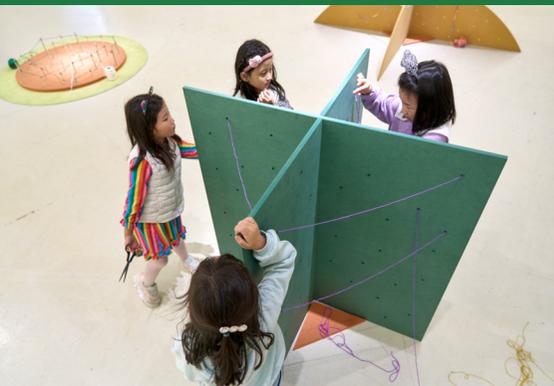
<<말을 걸어오는 예술> 전시 참여 모습





7장

못다한 소개,
경기 예술인 이어달리기



**엄마예술가로 아이는
예술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의
작품 제작에서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인 이어달리기

손민광

홍성에서 대전까지, 자유를 안겨준 풍경

#다양한관점 #인물과장소 #전시와소통

저는 평면회화와 입체 및 설치물 하는 손민광입니다. 평택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튼 터치

더보기

경기 예술인 이어달리기란?

예술인이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대표작품 등을 직접 소개하고 다른 예술인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레이스'를 이어가는 온라인 릴레이 홍보 프로젝트입니다. DB 조사를 완료한 경기도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이어달리기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기발랄한 예술인들의 질문과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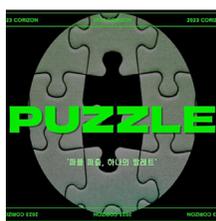
경기 예술인 이어달리기

| | | |
|-------------------|------|-------------------------------------------------------------------------------------------------------------|
| <p>상세페이지 바로가기</p> | 대상 | 예술인 DB 등록을 마친 경기 예술인 누구나 |
| | 지원내용 | 1)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SNS에 작품 홍보 2) 심층인터뷰인 이달의 예술인 참여 자격 부여 (*이달의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SNS 이용자가 투표해요!) |



김선하
예술활동 중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요?

2023년도 <모든 예술 31>에 선정된 작품의 기획과 연출, 섭외, 실연 등을 제가 맡으며 예술기획자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혜진(엘레나)
삶의 태도를 바뀌줄 만한 여행지가 있었나요?

보홀입니다. 생각의 전환점도 생기고 도전의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혜랑
내가 예술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은?

사람들이 저를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불러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낸 신호가 사람들에게 예술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순간이라서요.



주보람
예술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예술에 본격적으로 매력을 느꼈던 시기를 뽐자면, 제가 예고에서 대상을 탔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것 같아요.



한효진(모아나홀러)
당신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신, 나, 우리입니다.



이동현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에 담아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최대한 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곡을 쓴다면 사람들도 공감하면서 노래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알에이비
경기도에서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디에서 어떤 주제로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경기도 어디에서든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요!



손민광
예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글, 조각, 작사, 작곡 등 여러 예술 활동을 예시로 들 수 있죠.



강현준
내가 행복한 예술, 연제가 행복하세요?

배우로서는 드라마, 영화, 영상, 공연을 진행할 때이며, 연출로서는 제가 연출한 작품들이 인정받을 때입니다



이주현

빛이 하나 없는 어두운 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성격상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대안을 많이 생각해 두는 편입니다.



박민태(제이알필름)
어떻게 나라의 사람을 정의하고 정리해서 살아가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같으므로 자신을 혼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지

머지않은 미래에 본인의 예술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저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지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가끔 문학기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의왕 챔버 오케스트라

나를 예술가로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단원들의 단체에 대한 애정과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우리 지역에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는 보람이 원동력이 됩니다.



김정

예술 활동이 힘들 때 무엇이 힐링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예술 활동이 힘들 때 동료 작가들을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위로받습니다.



소화 이영일
작가님의 페르소나는 무엇인가요?

저의 페르소나는 遺畵(소화). 그림 속을 거니는 작가입니다.



김도훈
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형이나 회화, 악기나 자신의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듯 자신을 빚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아선

작품을 기획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작품을 기획할 때 콘셉트를 먼저 정하지 않고, 영감을 받은 것을 토대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율림

작품의 영감을 어떻게 얻으시나요?

그날의 기분, 그날 일어나는 일들, 그날의 날씨 매일매일 달라지는 하루하루가 영감투성이입니다!



이승현
예술가로서의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간관리와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성선모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작가님의 삶을 반영하시나요?

저는 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낙관적인 에너지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채임

예술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타고난 재능으로 그 시대에 사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연(JixY)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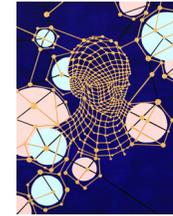
어릴 적부터 그림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펜으로 무작정 종이를 채워나가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수영

본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건강, 관계,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애란

언제부터 예술을 시작하셨나요?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2008년도 미술 유학을 계기로 2012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수없이 부딪히고 연결되는 관계에 관한 양상을 표현 중입니다.



김인배

예술이 가지는 특별한 연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술과 예술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권영원

예술 활동을 끝마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까요?

손이 가는 대로 상황과 감정에 충실히 작업을 완성하고 나면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창작의 고통이 승화된 희열을 느낍니다.



김민서

제일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많은 전시를 보고 공부도 하며 색깔과 전쟁 중인데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가장 와닿던 색은 블루 그레이였습니다.



배광우

당신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왜? 우리는 자주 행복하길 바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노(Mi-no)

작가의 작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주로 사람과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노랫말로 만드는 편입니다.



김영대(남만의 배짱이)

당신에게 '예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자 원동력입니다.



장용희

지금 예술인으로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예술의 두 사이는 깊은 고뇌와 성찰이 반복되기에 즐기며 만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쭈미엘(김주연)

창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창작은 어떤 예술이든 자신의 것을 표현하고 억지스럽게 하기보단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희

당신의 예술 마인드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림으로 저와 세상을 인식하기를 바라요.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자유롭게 저 자신과 세상에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박소현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작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다른 작업과의 차별성과 창의성, 그러나 완벽성을 지닌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득원(김득원)

당신도 경기도 예술인들과 함께 융합하는 예술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는 어떠신가요?

협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더욱이 경기도 예술인들과 함께라면 더없이 값진 프로젝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선미

기준에 하던 예술과 다른 분야를 조합한 경험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떤 분야의 클라보를 도전해 보고 싶나요?

음악과 미술이 좋은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작업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 위해 짧은 여행을 하거나 좋아하는 곳으로 드라이브하면서 자연을 봅니다.



이정효

타 분야의 예술인으로서 전통 한지 공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작품을 만나면서 전통한지공예의 맛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한지공예의 발전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나영(마리브)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누리지는 것입니다.



비비에코(황승숙)

당신의 작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정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미선

예술인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하신지요?

몇 개의 전시를 마무리하고, 열심히 노력해 준 제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며 여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이기화(흔적의 숲 대표)

행복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밤 산책을 하며 하루 동안 노트북과 핸드폰으로 받았던 빛으로부터 해방을 합니다. 어느 계절에도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과 빛의 차단은 마음을 안정되게 하죠.



백민정

예술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본인 또는 관객의 모습이 있나요?

포스터와 연주 프로그램만 보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곡이 있어서 왔다고 말씀해 주신 관객을 보면 더 좋은 구성, 좋은 작품과 연주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최예숙

요즘 나의 창작활동에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면에 감성을 이미지화로 작품이 완성될 순간 행복해집니다.



백세미(미양)

일상에서 소재를 찾을 때 노하우가 있나요?

일상 속에서의 깊은 관찰 및 발견을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하

예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계 없이 표현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형근(로이)

예술 활동을 하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민혜원

당신이 생각하는 '예술'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을 많이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니까요.



실리비(김민정)

그간의 예술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힘으로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였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융복합 전시가 떠오릅니다.

7장

못다한 소개,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장애예술인,
이들의 도약을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견하고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지원은 공연, 시각, 문학, 미디어 분야의 장애예술인(단체)이 예술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뿐만 아니라, 전문예술인으로 독립하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지속 가능한 단계별 성장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은 장애예술인(단체)이 공연 및 시각 예술, 문학 분야에서 다채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낭독, 쇼케이스,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기획 및 운영부터 사업홍보까지의 단계를 밟아나갈 때,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과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작의 안정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장애예술인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지원

| | | |
|------|--------------------------------------------------------------------------|--|
| 대상 |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 교육수혜자가 모두 장애예술인이어야 함 | |
| 지원규모 | 13건 내외 | |
| 방향 | 최대 3천만 원 | |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 | | |
|------|------------------------------------|--------------|
| 대상 |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 경기도 거주 장애예술인 |
| 지원규모 | 7건 내외 | 32건 내외 |
| 방향 | 최대 3천만 원 | 정액 3백만 원 |

마무리

To. 청년예술인

AI 발달로
인간의 숨결이 담긴
작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예술가로 존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예술세계를
온전히 펼쳐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무빛이매진팀 드림

저희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저의 20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참 불안해하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들이 다른 작가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작업은 평생 하는 마라톤이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나고 보니 그런 불안함으로 젊은 시절을 낭비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믿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엄마예술가 박혜원 드림

누군가 당신의 작품에 대해
평가와 비판을 하게 된다면
좋은 충고는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음에 왜 예술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인 표현과 실현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소울크로싱팀 드림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래서
나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 지가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움직인다면
어딘가에는 가닿지 않겠냐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청년예술인 조민아 드림

예술 계통으로 진로를 결정했다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야든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특히 예술가들은 어떤 누구와의 경쟁보다도
본인 스스로와 경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완벽하게 섭렵해야
예술가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후 내가 이 분야에 능통한
예술가가 되었다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세상을 넓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보이라는 직업을 25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열심히 배우며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그 분야의
예술가가 되어있을 겁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퓨전엠씨팀 드림

발행 2023년 12월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대표이사 유인택
총괄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
책임 예술인지원팀장 박슬기
기획 예술인지원팀 강보경
지원 고경선, 김봉각, 김혜진, 박도혜, 박미규, 박준영, 이다현

도움주신 분들

참여 퓨전엠씨, 조민아, 무빛이매진, 소울크로싱, 박혜원, 가은 솔로이스츠
디자인 이건하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0870

© 경기문화재단, 2023



본 <경기예술인을 위한 예술짚(ZIP)>책은 경기문화재단 '2023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999-0474-5(13600)

- 1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란?
- 2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에 꽃힌 비보이라는 깃발
퓨전엠씨
- 3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Beyond Somewhere, 훌어진 청년의 삶을 담다
조민아

- 4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마음을 비추는 몸짓으로 쌓아 올린 예술터는 견고하다
무빛이매진
- 5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창작의 멜팅팟, 교차점 속 예술가들
소울크로싱
- 6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이야기로 연대하는 사람들, 엄마예술가로 살아남기
박혜원
- 7 못다 한 소개,
경기 예술인 이어달리기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

예술

리뷰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SBN 978-89-999-0474-5

